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46
백록담 남벽 지척 세개의 오름군

입력 : 2004. 09.10. 00:00:00



▲방애오름은 오름의 모양이 방애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위로부터 백록담에 가장 가까운 오름인 웃방애. 가운데가 방애,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알방애오름이다.

방애오름

영실 등반로를 거슬러 정상 가까이에 이르면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화구벽을 정면으로 왼쪽에는 세 개의 오름군인 윗세오름, 오른쪽에는 세 개의 방애오름군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 남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마치 병풍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위치한 오름군이 방애오름이다.

위로부터 웃방애, 가운데가 방애,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알방애다. 거리상으로는 백록담에 가장 가까운 오름이 웃방애오름이다. 방애오름군 왼쪽에는 광활한 면적의 고산초원 선작지왓이 펼쳐진다.

방애오름은 오름의 모양이 방애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방애오름 아래쪽 기슭에는 남벽 등반로가 있다. 등반로 변에는 샘이 있어 등반객들이 즐겨 이용했었다.

그러나 이 등반로는 무리한 이용으로 심하게 훼손돼 지금은 자연휴식년제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탐사단은 지난 99년 10월과 11월 이곳을 탐사한 적이 있다. 효돈천 발원지를 조사하던 때였다. 감회가 깊을 수 밖에 없다.

먼저 가운데에 위치한 방애오름을 올랐다. 방애오름은 산철쭉과 털진달래가 번갈아가며 꽃망울을 터뜨릴 때였다. 한라산 고산지대의 골칫거리인 제주조릿대가 키작은 산철쭉과 털진달래의 머리부분까지 뒤덮을 기세다.

정상부는 돌무더기다. 오름이라고는 하지만 여느 오름처럼 분화구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다. 방애오름을 좌우 경계로 하여 한라산 남쪽에서 제일 큰 하천인 효돈천의 상류인 산별른내가 위치하고 있다. 알방애 남단에 이르면 두 갈래의 산별른내를 관찰할 수 있다. 이 하천은 미악산 근처에서 합류해 돈내코 계곡을 형성하고 효돈 하구인 쇠소깍으로 이어진다.

산별른내는 탐사단이 99년 직접 도보탐사했던 곳이다. '산을 벌러버린 내'라는 제주도식 표현으로, 하천의 규모를 웅변해주는 말이다. 알방애오름 남서쪽에 형성된 산별른내는 해발 1450m의 하상에서 높이 100여m의 절벽이 한라산 정상을 지척에 두고 가로막혀 있다. 한라산 정상 남벽에서 나란히 이어진 방애오름의 남서측 계곡을 따라 발달된 경사급변점이다.

이 경사급변점에는 매우 얇은 수십개의 용암단위(lava unit:용암이 한번씩 분출하여 흐를 때 마다 만들어지는 암석의 상하구분이 가능한 구조)가 깎아지른 절벽에 노출돼 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용암단위만 해도 대략 45회 정도이다.

협곡의 산별른내는 식생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른바 암극식생이다. 외부영양물질과 수분은 적고 광선과 바람이 많은 환경이 독특한 식물군집 환경을 잉태시킨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박사는 이곳을 가리켜 "인위적·자연적 피해가 거의 없는 '종(種)의 피난처'"라고 말했다.

한라산 정상과 지척에 위치한 방애오름은 산남 최대하천인 효돈천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한라산의 화산활동과 지질구조, 특산·멸종희귀식물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산별른내'를 잉태시켰다.

[전문가 리포트]한라산 특정종 세밀한 분류 필요

1905년 9월 11일 한라산에서 채집한 동고비 수컷 1마리가 영국조류학자 클럽회의에서 *Sitta berfordi* 라는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나중에 *Sitta europaea berfordi*(붉은배동고비 또는 제주동고비) 아종으로 재분류되었지만, 이것이 제주도 조류에 대해서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보고이다.

당시 런던 동물학회와 대영박물관은 1904년부터 1911년까지 동부아시아(주로 일본, 한국, 중국)에서 소형 포유류의 채집을 목적으로 동물탐험을 기획하게 되는데, 제주도에는 미국인 Malcolm Playfair Anderson과 市河三禧가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부산과 목포를 지나 제주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제주에서 1905년 8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46일간 천막생활을 하면서 앤더슨씨는 포유류와 조류를 채집하였고 市河氏는 앤더슨氏를 도우면서 주로 곤충을 채집하였다. 이들은 족제비, 등줄쥐, 조류 약간, 곤충류 86종 밖에 채집하지 못했는데, 이는 채집시기에 비날씨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한라산 곳곳을 탐사하고 있지만, 제주동고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철새들의 이동경로상에 있어서 수많은 철새들이 지나가는 중간기착지이기도 하지만,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의 생물진화학적 단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를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동물상은 한반도의 동물상과 함께 유라시아 북부의 구북구 동물지리구에 속하지만, 섬으로 고립되어 대륙과는 오랜 세월동안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약한 일부 조류(털새 중에서)를 비롯하여 양서류, 포유류의 경우는 같은 종이라도 제주 고유의 종(種) 또는 아종(亞種)으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제주도롱뇽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도롱뇽과는 별개의 종으로 분류되었으며 제주휘파람새, 제주큰오색딱다구리, 제주족제비, 제주관박쥐 등도 아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최근 한라산연구소의 오장근 박사는 한라산 노루가 시베리아에 분포하는 개체군과 다른 형태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한라산에 분포하는 제주동고비를 포함한 특정종(특히 아종으로 분류되는 개체군)에 대한 분포범위와 개체수 변화 그리고 형태학적, 생태학적,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보다 세밀한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완병 탐사위원(제주도자연사박물관/동물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